

⑦ 대불련의 내일을 위한 제언

포교방향 재정립 '관심과 지원' 절실

한국불교의 지성화에 기여한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은 대학생 포교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밑거름임에 틀림없다. 대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특단의 대책과 묘안을 찾기 위해 대불련 중앙지도법사 혜국 스님,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윤재철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신호철 대불련 초대 회장에 대불련의 발전 방향 등 애정 어린 의견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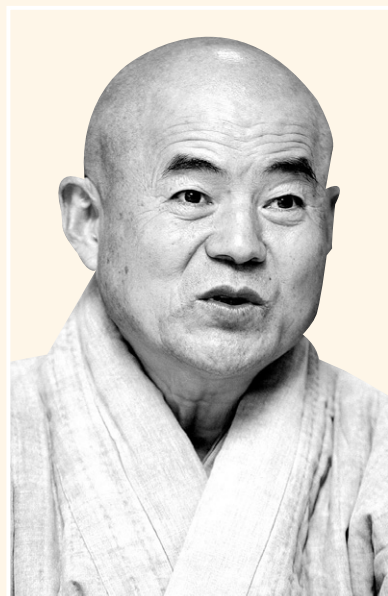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Q: 현재 대불련은 각 대학 불교동아리의 활동이 쇠퇴하는 등 위기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의 미래인 청년 불자들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불련이 창립 당시의 활발한 활동과 같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신호철 대불련 초대회장 = 대불련이 위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 모임이 평균 10명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에 돌입하는 등 졸업 후 먹고 살 공리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정신적인 자아완성을 지향하는 불교의 고차원적인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대학 불교학생회 활동을 범불교계에서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모두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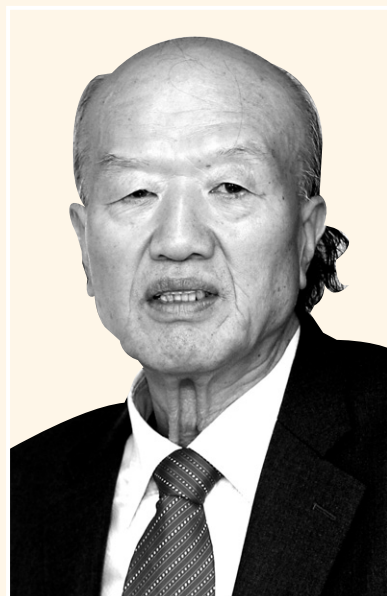
혜국 스님 = 대불련 위기는 대불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세기 이후 물질문명이 정진문화를 앞질러 가는데 따른 총체적인 인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대불련에 대한 관심 부족 요인이 큼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따라야 합니다.

고준환 교수 = 한국불교가 중흥하려면 조계종과 총림대학인 동국대의 비약적 발전이 요청됩니다. 대학생 불자연합체인 대불련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과 총림대학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불련은 회장과 사무총장 등 중심력 역할을 할 사람들이 혁명적 결심으로 역량을 모아 전심전력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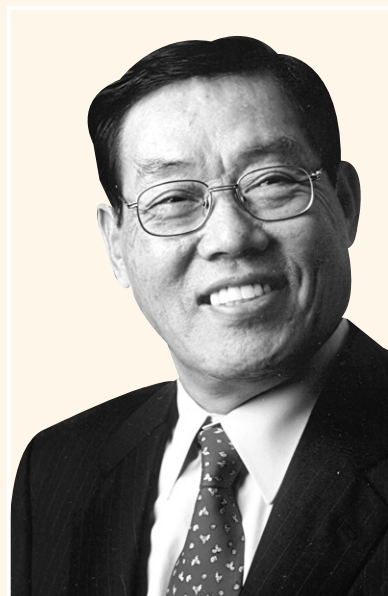
혜국 스님

대불련에 중단 초월한 관심 애정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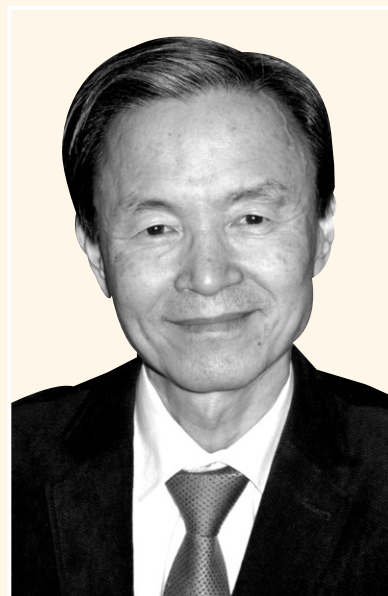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총동문회서 주요대학 결연 교불련도 책임법사 파견을



신호철 초대회장

젊은 불자 콘서트, 불교트위터 등 포교 다각화해야



윤재철 총동문회 회장

젊은 불자 육성대회 개최 후견인 역할 보다 충실할 것

Q: 대불련은 90년대 이후 불교계의 크고 많은 사태를 겪으며 수차례 사무실 이전하는 등 조직 구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직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재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최근 조계종에서 대불련이 산하단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종단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활동이 모두 위축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생들이 종교 이념 활동 보다 취업준비에 더 바빠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은 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불련 활동이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혜국 스님 = 종단을 넘어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심도 깊은 고민을 할 때입니다. 대불련은 불교의 미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돌아오는 오늘'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준환 교수 = 조계종을 비롯한 제종단이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주요대학들과 결연을 맺고 자금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각 대학생불교회에 교수불자를 책임지는 법사로 파견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신호철 초대회장은 종단의 훌륭한 스승님들과 각 대학 지도교수단, 대불련 출신 선배단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각 대학에 정기적으로 불교사상강좌 또는 젊은 불자 콘서트를 개최해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고민을 상담하여 확고한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가가 최근 개혁을 했습니다. 대불련이 신세대 불교에 성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포교를 진행해야 할까요?

고준환 교수는 신세대가 부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제시한 분입니다. 실제적인 깨달음을 불교생활 운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불교는 최첨단 현대과학을 2600년 전부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닐스보어의 상보성 원리 등이 부처님 가르침에 녹아 있습니다. 불교가 실질적으로 생사해탈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포교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호철 초대회장은 대학생들은 불교를 너무 고답적이고 어려운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인생살이가 곧 불교이며 누구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상구보리) 더불어 잘사는 것이(하화중생) 불교라는 심플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불교적 인생관을 갖도록 젊은 불자육성, 장학사업, 템플스테이 명산대찰, 순례행사, 젊은 불자콘서트, 수련대회, 불교 트위터 조직들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불련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교단체활동을 떠나지 않도록 조직화하고 이들이 후배 대학생불자를 지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혜국 스님 = 먼저 신세대와 부처님 가르침이 소통 할 수 있는 노후어를 포교원과 대불련이 노력해 만들어야 합니다. 포교원에서 최근 대학생 전법단을 발족했습니다. 기존의 대학생 조직을 갖춘 대불련과 대학생 전법단이 유기적인 역할을 해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Q: 대불련이 불교계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불련이 나서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고준환 교수는 자체조직 강화와 함께 초·중·고교 불교학생회 육성에도 나서야 합니다. 대불련은 청년 불자로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보살정신으로 나서고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세계로 눈을 돌려 불교 국가 대학생들의 모임 등을 통해 교류하는 한편 종교 갈등을 막고, 평화세계가 되도록 하는 청년 특유의 힘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신호철 초대회장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인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실천할 때 해결됩니다. 이런 사회구현에 대불련이 이바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혜국 스님 =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오직 바다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대불련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연기법

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갈 때 대불련은 이 사회에 앞서가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Q: 대불련은 임원들이 바쁜 학업 생활 중에도 임원기간 동안 휴학을 하고 대불련 활동에 매진하는 등 원력과 신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대불련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남기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국 스님 = 대불련의 문제는 대불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발심수행으로 회향하고 그 회향이 사회로 다시 회향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고준환 교수 = 21세기 인류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3년독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성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독을 얻었으니 대학생 불자들은 늘 감사하고 겸허하며 당당하게 정진해 3년독을 모두 연결 기원합니다.

신호철 초대회장은 대학생 불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를 택하고 자기수련을 열심히 하고 불교활동을 해나가는 데 너무나 노고가 많은 줄 알며 사랑합니다. 선배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격려해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불교를 택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자성불을 확고하게 불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 불교계와 대한민국을 리드할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온갖 꽃들이 온 산하에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아름다운 중중무진한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확고한 우주관과 인생관을 확립하여 대불련이 한국불교발전에 첨병이 되어 대한민국을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중심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 학생들은 최근 조계종 지원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용기와 신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여 장래 이 나라를 불교적 이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획연재>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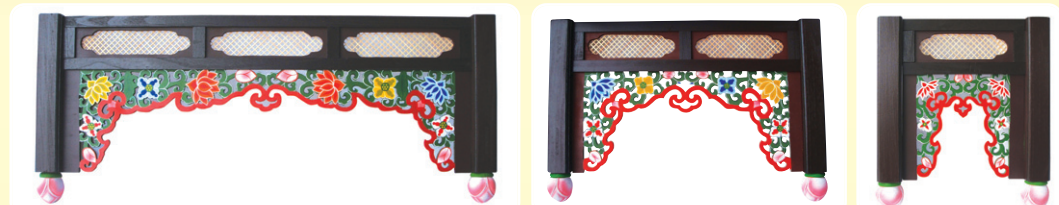
- 黑龍의 해, 흑룡족자로 만사대길 -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에 집안 및 사업장 벽면에 흑룡족자를 걸어놓으면 험한 용의 기운으로 사업번창, 소원성취, 건강기원, 삼재소멸(쥐띠, 용띠, 원숭이띠)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 자 : 1판

2 자 : 4판

1 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 세로 35cm 가격 50만원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흑룡족자 : 폭 60cm 길이 93cm 재질 : 비단천 / 가격 3만원



용 확대사진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운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색로 매듭한 팔찌를 착용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해상용왕 높이 82cm 문수동자 높이 70cm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좌우협시분) 재질 : 마블(특수물) 가격 70만원 (해상용왕, 문수동자 1set)



독성나만존자 높이 74cm 재질 : 마블(특수물) 가격 50만원

고 전 상 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